

## 인삼 부산물 급여 돼지의 도체 및 육질 특성

유영모, 안종남, 채현석, 김진형, 김용곤\*, 박형기<sup>1</sup>  
 축산기술연구소 축산물이용과,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sup>1</sup>

이용성이 없는 인삼 잎과 줄기의 조사포닌 함량은 약 8%정도 그 가치가 높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삼 잎과 줄기 부산물의 추출액을 사료에 3% 혼합하여 생산한 사료를 돼지에 20일, 30일 및 40일간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의 도체 및 육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급여수준에 따른 돼지의 도체특성에 있어서 냉도체중은 40일급여구 처리구가 86.50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저 지방율은 40일급여구가 18.32%로 가장 높았다. 처리별 도체등급 A 및 B 등급출현율은 30일과 40일 급여구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등지방 두께는 20일 급여구가 가장 적었다( $p < 0.05$ ). 처리별 육색 Hunter L값은 30일 급여구가 50.2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10일급여구가 46.9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PSE출현율은 20일 급여구 처리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pH는 인삼부산물을 40일급여한 처리구에서 5.72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인삼부산물 급여 돼지 등심육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단력은 20일급여구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가열감량은 인삼부산물 급여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력은 30일 급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인삼부산물 추출액 급여에 의한 돈육생산시 도체특성 및 부분육 수율에서 인삼부산물 급여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육색 및 pH는 인삼부산물을 급여한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가열감량 및 보수력은 40일 급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은 인삼 잎과 줄기의 부산물 급여에 의하여 생산된 돈육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며, 인삼성분 함유여부 및 기능성에 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